

인사혁신으로 조직안정... 올 종합금융그룹 도약 다짐

2018 따뜻한 금융 행복한 한국

손태승 우리은행장

임원 17명 교체... 계파갈등 없애 글로벌 네트워크 300개→500개 예보지분 매각 '완전민영화' 추진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018년을 '종합금융그룹 도약의 해'로 삼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손 행장은 우리은행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동시에 실적·주가를 끌어 올려 금융지주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완전 민영화'를 통해 기업가치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 4년만에 다시 종합금융그룹 도약

손태승 행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내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다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01년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됐다가 2014년 4차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



손태승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권),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핵심 계열사를 분리 매각하면서 지주사를 해체하고 우리은행으로 흡수됐다.

당시 은행 체제로 바뀌면서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이 연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지주사 체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KB·하나·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은 모두 지주사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도 꼽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과점주 체제의 민영화까지 달성한 만큼 금융지주 전환에 속도를 냈으나,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발목을 잡혔다.

이에 손 행장은 취임 후 인사 혁신을 통해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내정 직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행장이 돼서 계파 갈등이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손 행장은 지난달 22일 취임 직후 임원 22명 중 17명을 교체하며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 임원을 같은 수로 임명했던 '동수(同數) 원칙'을 깬다.

조직 안정이란 초석을 다진 후 종합금융그룹 달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손 행장은 내정 직후 "오는 2020년에는 대한민국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비은행 계열



사를 갖춰야 하는 만큼 자산운용사 등 규모가 작은 금융사부터 단계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글로벌 강화... '완전민영화'도 주목

손 행장은 2018년 종합금융그룹 달성을 위해 5대 경영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성장 기반 확보 ▲현지 맞춤형 영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차별화된 금융플랫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시대 선도 ▲서민금융 지원 및 혁신기업 투자를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완수 ▲1등 종합금융그룹 도약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제시했다.

먼저 은행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디지털금융 확대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를 출시하고 '위비 플랫폼'을 완성한 바 있다. 올해는 유닉스 서버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 '위니(WINI)'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손 행장의 오랜 글로벌 경험을 토대로 '해외 영토 넓히기'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4년 글로벌사업본부 집

행부행장에 오른 뒤 글로벌그룹장, 글로벌부문장을 맡으며 현지 금융회사를 M&A 하는 등 우리은행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2014년 말 184개에서 지난해 말 301개까지 확대됐으며, 내년 말에는 500~55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18.43%)을 매각해 '완전 민영화'도 시도할 계획이다.

예보가 잔여 지분을 매각하려면 우리은행 주가가 올라야 한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1만5750원 수준이다. 정부가 공적자금 미회수분을 온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주가(1만4300원)는 웃돌고 있으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선 실적 상승 등을 통해 주가를 더 안정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안타증권 박진형 연구원은 "우리은행은 경상이익 개선 속도가 가장 크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 중 가장 큰 이익모멘텀을 가진다"며 2018년 예상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13.2%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은행은 예보의 잔여지분 매각과 지주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코리안리, 내년 6월 스위스 현지법인 만든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지역 인수규모 2025년 3억달러 이상 증대 기대

코리안리재보험은 유럽시장 수재 증대를 위해 스위스 취리히에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유럽은 현재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보험시장으로 전세계 보험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스위스는 '유럽 재보험산업의 메카'로 자국 내 거점을 마련한 재보험사만 무려 59개사에 달한다.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등 유럽 주요국 언어 구사 능력 및 재보험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다.

코리안리는 스위스 현지법인 설립 관련 오는 2019년 6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한다. 유럽 내 현지 영업 강화를 통해 독일·프랑스 등 유럽지역 인수 규모를 현재 2억 달러 수준에서 오는 2025년 3억 달러 이상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지화를 통해 유럽 내 고객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 언더라이팅 전문성을 확보하여 수익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리 원종규 사장.

스위스 현지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코리안리는 영국 로이즈 현지법인과 함께 유럽 내 2개의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런던 로이즈 현지법인은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로이즈의 국제보험시장 허브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당분간은 기존 로이즈에서 영업하고 있는 우량 신디케이트 지분 투자 방식

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인가 신청을 한 코리안리 중국 상해 지점의 경우 아직까지 중국 금융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았다. 코리안리를 포함해 지난 2016년 6월 중국 보험감독위원회 심사를 받은 회사들 모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보통 인허가 승인까지 2~3년 이상 소요된다"며 "오는 4월 이후 중국 보험회 주석자리가 공식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인가 승인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안리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중 지점 설립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올해 말레이시아 영업 활성화를 위해 라부안 지점,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해 두바이 지점을 설립할 바 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이번 스위스 현지법인 설립 추진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영업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전세계에 걸쳐 영업거점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NH농협銀, 윤리경영 실천 결의

NH농협은행은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개인별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소 단위로도 별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투명한 정도경영은 신뢰받는 농협은행 구현을 위한 핵심가치"라며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농업·농촌 및 금융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과 전 임직원을 대표해 이성섭 개인고객부장(오른쪽)이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IBK기업銀, 中企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중기중·신보와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과 중기중앙회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원·부자재 공

동구매 중소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구매기업에 대한 전용 대출상품과 판매협동조합을 위한 전용통장도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BNK부산銀, 금리 2.2% 온라인 예금 특판

BNK부산은행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최대 2.2%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정기예금 특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e-푸른바다 정기예금'은 가입대상에 제한은 없으며 12개월 이상 23개월까지는 2.0%, 24개월 이상 35개월까지는 2.1%, 36개월 이상 60개월까지는 2.2%의 금리를 적용한다.

부산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 부산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BNK e-스마트 정기예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1년제 가입 기준 2.0% 금리를 적용하며 스마트폰과 부산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예금 가입액은 1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다.

BNK부산은행 이선영 디지털금융부장은 "새해를 맞아 부산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온라인 전용 정기예금 특판을 준비했다"며 "부산은행의 모바일 전문은행 '썬뱅크'를 통해서도 새로운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오익환 "기본 충실한 경영에 초점 맞춰야"

(DGB생명 사장)

DGB생명 '스케일업' 혁명 당부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지난 3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기본에 충실한 경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고객감동 및 정도영업의 생활화로 DGB생명의 새로운 '스케일업(Scale up)' 혁명을 당부했다.

오 사장은 이날 서울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하고

2018년 새출발을 다짐했다. 그는 "DGB생명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영업혁신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며 "신뢰받는 라이프 파트너라는 확고한 비전을 목표로 '고객에게 주는 가치 극대화'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DGB생명만의 고객감동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선 올해 DGB생명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사령장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봉준 기자